

· 세례자 요한의 설교(루카 3, 16~18)

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. 그분께서는 너희에게
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.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
깨끗이 치우시어,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
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.